

공동 브랜드화 통한 업계 공동 발전 모색 업계 융합 시금 토로



최 상 식
한국포장기계협회 회장

지난 1994년 10월 창립된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지난 10월 20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제6회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협회 창립 이래 회원사간 친목도모와 교육 훈련사업, 국내외 전시사업, 각종 출판인쇄사업, 국제교류사업, 포장기계수출촉진사업 등을 전개해 온 한국포장기계협회는, 이날 행사에서 (주)선진에스엠 최상식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 포장기계업계의 재도약을 꿈꾸며 의지를 다잡았다. 이에 최상식 한국포장기계협회 신임회장을 만나 향후 협회 운영 방침에 대해 들어보았다.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중임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임기간동안 ‘업계 융합’을 목표로 협회 회원사 및 포장기계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식 회장은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해 주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국내 라벨링 시장의 장인인 최상식 회장은 지난 1982년 (주)선진에스엠을 창립한 이후 20년 넘게 상표 부착기계인 라벨러 제작에 주력해 온 엔지니어이다.

국내 최초의 자동 라벨러 부착기 개발 주역인 그는 국내FA(공장자동화) 실정에 맞는 자동 라벨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일품목만의 자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성공을 인정받았다.

10년전인 1994년, 국내 포장기계업체의 중심점이 될 포장기계협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온 최상식 회장은, 이후 수석부회장을 거쳐 금번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한국포장기계협회는 국내외의 포장기계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경영정보와 각종 자료를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포장기계협회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강화, 해외포장기계전시장의 지속적인 참가로 국내 포장기계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포장기계 업계간 정보교환이 미미하던 폐쇄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는 등 회원사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사실이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포장기계 업계도 연구기술 개발과 고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상식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업계 융합을 통한 공동 발전과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사간 기술력의 공동화를 토대로 공동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 즉 ‘포장기계’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장기계협회와 포장협회, 각 포장재 별 단체 등 포장단체의 공존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업체간 기술력의 공

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및 정부의 先투자가 필요하다는 최상식 회장. 그는 “대만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단체 및 정부의 지원율이 높다”고 예를 들면서 “함께 개발하고 함께 공유할 때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공존공생의 모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로 최상식 회장은 일본의 수출 장벽을 뚫고 제품을 생산, 역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

“‘최고’가 되겠다”는 것을 늘 꿈꾸었다”는 최 회장은 국내 포장기계인들이 ‘장인정신’을 갖고 업체를 운영할 때 자연스럽게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고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가져와 해외시장 개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한편 최상식 회장은 다양하고 많은 회원사의 가입으로 협회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겠지만, 부실 회원사를 정리하는 등 협회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정한 장인정신과 엔지니어 정신으로 포장기계 업계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포장기계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포장기계협회의 사단법인 등록과 함께 정부차원의 협회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최상식 회장. 지난 10년 한국포장기계협회의 쾌거가 향후 가일층 발전하는데 미력하나마 주력하겠다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